

[제주녹색당 2024총선평가] 1. 전체 평가

(모금 및 비대위구성 방안 포함)

1. 2024 총선 방침 및 목표

1. 자본주의 성장중심주의가 낳은 삶의 위기를 해결하고 거대 양당정치와 결별하는 녹색 대안 정치를 일구기 위해, 기후·녹색운동과 연대하여 기후정치세력화 추진
2. 기후정치세력화와 거대양당체제 타파 위한 원내진입을 목적으로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강력한 선거연합 추진하며, 정의당을 시작으로 선거연합정당 추진
3. 2024년 총선에 앞서 '기후정치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사회 비전을 담은 '기후정치선언문'(가칭)과 당의 정책적, 정치적 원칙을 담은 '기후정치강령'(가칭) 수립

2. 정세

- 윤석열 정부의 생태파괴, 민생파탄, 핵 진흥, 불통 정치는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낳고 있음. 윤 정부의 극우적, 독선적 운영으로 문 정부보다 빠른 민심이반.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체할 대안 정치 세력이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반윤석열 정서는 반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선택으로 귀결되고 있음. 소수정당들 중 일부는 반윤석열 정서에 올라타 더불어민주당 지지 시민들의 호감을 사는 방향으로 정당의 생존(총선) 전략을 짜는 실정임.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낮은 투표율-> 여야 어디에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 '정치 실망층'의 존재 보여줌. 반윤/반명의 구도 아래 중도적 '제3지대'가 이 층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적 정치 세력의 연대 필요성도 대두.
- 탄소예산은 줄어듦과 기후재난이 닥치는 상황에서, 장기적 전략이 아니라 '기후 의식 시민들'을 결집시켜 정치적 세력화를 도모하는 일 필요.

3. 전략

- 기후녹색운동과의 연대의 힘을 기반으로 기후녹색진영을 확대강화하려는 계획 아래 2024 총선 투쟁을 진행함.
- 1) 지역구 : 기후위기 대응 현장에서 지역의 기후녹색운동과 지역정치를 발전시키는 지역구 전략
- 2) 비례대표 : 기득권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반기후 입법 권력 교체를 목표로 연합정치를 통해 원내진입을 이루는 비례 전략
- 핵심전략 -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양당 정치 체제 타파를 위해 노력했으며 현장에서의 기후정치 실현에 노력해 온 정당과의 선거연합정당 구성
- 녹색당 비례후보는 선거 운동의 전 과정을 통해 기후녹색운동과 함께 해야 하며, 운동의 요구를 수용해 공동 총선 공약을 포함한 정책 연대를 실현해야 함.
- 정의당 제안이 녹색당의 연합정치의 원칙과 원내진입의 목표에 부합
- 선거연합정당이 구성되지 못한다면, 녹색당 자력의 힘으로 기후녹색운동과의 연대에 기반하여 비례대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임.

4. 평가(운영위에서 나눈 내용)

1) 거대 양당 체제 타파/기후 정치 세력화 목표는 적절했는가?

-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강한 민심을 적극적으로 읽어내는 부분에 소홀했음
- 2024 총선에서 거대 양당 체제 타파는 정권 심판에 비해 선명성이나 설득력이 약했음
- 거대 양당의 문제들이 가장 크게 부각될 때 외에 총선에서 거대양당 심판 슬로건이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지지 못할 것
- 윤석열정권 심판에서 우리식의 서사와 선명성을 만들기 위해 더 치밀한 기획이 필요했다.
- 기후·녹색운동과 연대하여 기후정치 세력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다양한 기후 녹색운동진영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선명하게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어려운 목표였다.
- 기후녹색운동과 기후정의행진, 탈석탄탈핵운동 등의 연대는 있었지만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한 논의가 없다가 선거 전에 논의 테이블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성과를 보기 어려웠다.
- 강력한 응집력을 보여주지 않는 기후유권자 그룹에서 가장 응집력을 드러낼 수 있는 집단이 기후녹색운동 세력이기에 정치세력화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 영국에서 거대 양당이 기후 의제를 취하면서 녹색당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음. 차별성 있는 기후 의제를 통해 응집력있는 기후유권자를 조직해야할 과제

2) 연합정치를 통한 의회 진출 전략

역대 녹색당/정의당 총선 정당 지지율

	2012	2016	2020	2024(녹색정의당)
녹색당	0.48%	0.76%	0.21%	2.14%
정의당		7.23%	9.67%	

- 의회 진출을 목표로 한다면 녹색당은 연합정치를 할 수 밖에 없음
- 정치 집단으로서 녹색당의 목적은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의회에 진출하는 것
- 녹색당은 정치 집단으로서 다양한 연합 형태에 대해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함
- 정치의 가능성을 미리 달아놓고 한계 짓기 보다 더 많은 정치 경험이 녹색당에게 필요
- 이번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은 유권자들에게 유의미한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녹색당이 대의원대회-전국위-당원총투표-선거연합정당 시도까지 하나의 과정을 완결적으로 시행한 것은 정치 경험으로 유의미함
- 정치조직과 운동조직의 정체성이 공존하는 녹색당에서 두 차례의 총선 선거연합 논의는 당이 건강하게 강화되는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당의 한정된 역량은 선거연합 논의의 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소진됨

- 선거연합논의를 둘러싼 논의 과정은 이후에도 비슷하게 반복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역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정치를 조직하고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녹색당 상황에서는 당원들을 결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이번 선거에서 뛰었던 후보들의 경험을 녹색당의 중요한 자산으로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함

3) 앞으로: 우리의 주장은 있지만 시민들과는 멀리 있는 녹색당, 지역정치를 세우자

- 변화와 창조는 변방에서 시작
- 한국처럼 소선거제인 영국의 사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택해 10년 대계를 세운 후 밑바닥부터 유권자들과 접촉
- 안동, 마포, 제주 등 지역 정치를 만들어가는데 전국당이 지원
- 지역 의제를 세팅하고 의제를 실현해가는 과정에 전국당과 지역당의 협업
- 녹색당의 목소리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 의제와 메시지 세팅에 더 많은 고민 필요 (ex: 선거 전 여론조사를 하기 어려운 녹색당 입장에서 녹색당이 질문지를 만들어 주변 300인 여론조사 등 진행)
- 녹색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현실적인 삶(민생.복지)과 연결시키는 지역 의제를 찾아서 다양한 방법(예산/조례/주민참여예산 등)으로 끈질기게 실현하는 경험을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함
- 다른 정당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고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기후의제를 찾아서 물고늘어져야 함
- 지역정치를 조직하고 지역의 기후유권자 조직(지역내 기후 모임 조직)
- 기후유권자를 응집력있게 조직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함

정세분석(2024 대의원대회 자료)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낮은 투표율-> 여야 어디에도 지지를 보내지 않는 '정치 실망층'의 존재 보여줌. 반윤/반명의 구도 아래 중도적 '제3지대'가 이 층을 겨냥하고 있는 가운데 진보적 정치세력의 연대 필요성도 대두.

- 탄소예산은 줄어 들고 기후재난이 닥치는 상황에서, 장기적 전략이 아니라 '기후 의식 시민들'을 결집시켜 정치적 세력화를 도모하는 일 필요.

이원재(성공회대 연구교수) <https://slownews.kr/106860>

2022년에 전통적 진보정당 지지 유권자그룹의 이념 성향과 민주당 베이스의 이념 성향 사이에 구분 붕괴.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군집을 형성할 정도 되지 못함

유권자들은 이미 유럽식 다당제가 걸맞을 정도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 군집

이번 총선 결과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 정책 선호 지형이 정당들의 전략과 맞물리며 관찰된 것

가치 지향에 따른 6개 유권자 그룹 구분 및 비중 (3,000명 중)



개혁우선(정치적 응집력 강함)-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평등평화그룹, 친환경 신성장 일부 가세-무능한 정권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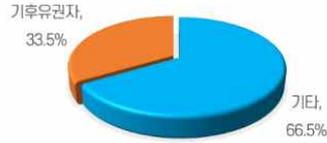
반권위 포퓰리즘(정치적 응집력 약함)-개혁신당

친환경 신성장(정치적 응집력 약함)

한국의 기후유권자

기후유권자 정의

- 개념적 정의 : 기후의제에 대해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의제를 중심으로 투표선택을 고려하는 유권자
- 조작적 정의 : 기후정보지수 3.8점 이상 & 기후민감도 지수 25.6점 이상 & 기후투표(정당) 의향을 가진 유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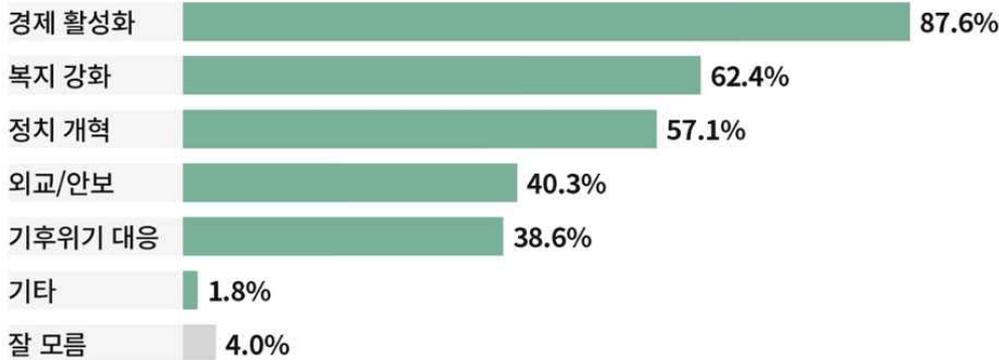


기후유권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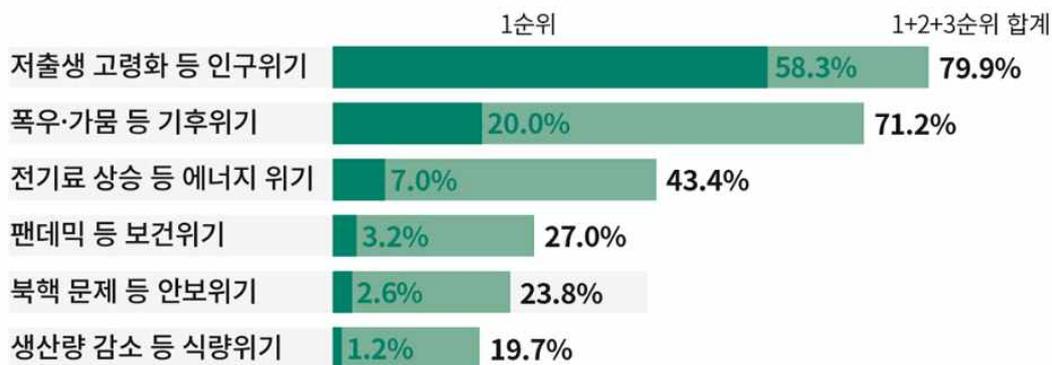


- 2023년 한국의 '기후유권자'는 주관적 이념성향 기준 진보층에 더 분포. 진보층 41.7%, 중도층 30.6%, 보수층 28.8%
- 성별로는 남성이 35.7%, 여성이 31.4%로 분포. 기존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는 집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 그러나 본 조사의 기후 유권자는 기후위기 민감도만이 아니라 기후정보 인지와 기후투표 성향을 함께 고려한 집단, 이 기준에서는 남성 유권자집단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확인
-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18_29 < 30대 < 50대 < 60세 이상으로 분포. 정보인지와 기후위기 민감도, 기후투표성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후유권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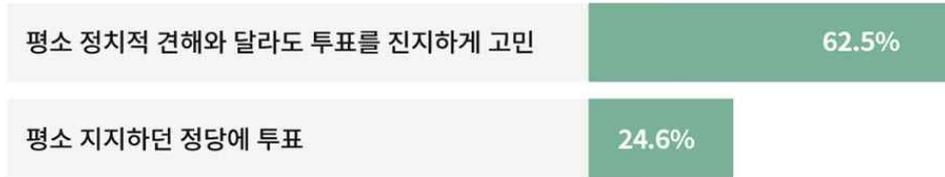
<그림 9> 총선 후보 공약 중 가장 관심이 큰 분야 (1+2+3 순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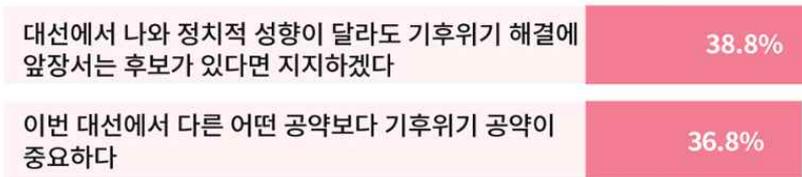
<그림 2> 아래 사회적 도전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1~3순위 응답)



<그림 10> 기후위기 대응이 마음에 드는 후보에 대한 투표



※ <그림 11> 다음 주장에 동의하는가(<시사IN> 2021년 12월 조사)



[제주녹색당 2024총선평가] 2. 비례선거운동

● 녹색정의당 득표 결과

(단위: 명)

지역구	선거인 수	투표 수	득표	득표율	유세	조직	공보물
제주 합계	566,611	352,464	14,033	4.14%			
제주시	410,290	251,346	9,505	3.92%	○	○	
서귀포시	156,321	101,118	4,529	4.7%	○		

● 활동 목표

- ◎ 제주녹색당은 정의당 제주도당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 ◎ 유세차량을 이용한 정당연설회, 기자회견, 길거리콘서트, 횡단보도순례 피케팅, 시민을 만나는 선거운동, 전화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주시 갑 지역 비례선거운동을 진행한다
- ◎ 적극적으로 당원들의 참여를 조직한다.

● 조직구성

녹색정의당 비례선거 운동본부	제주녹색당 선거운동원 (총 25명)	강민수 고이영 김순애 김 선 김혜령 김종옥 부순정 박은서 신현정 양인숙 오안자 이건웅 이상현 이성준 이은정 이은지 이태영 정승세 주현우 황현호 황용운 최희정 한은정 현성미 (박경아 마포당원)
-----------------------	---------------------------	---

● 주요 활동

- ◎ 의사결정 (전국위 결정, 제주녹색당 결정)

일시	단위	내용
2023년 3월25일	제10차 전국대의원대회	총선 기본계획 채택: 정당 및 시민사회와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원내 진출을 달성
2023년 7월29일	제주녹색당 총선대비 당원토론회	총선목표와 연합정치의 범위 등 다양한 의견 나눔
2023년 8월 3일	제주녹색당 8월 운영위원회	2024 총선 선거연합 관련해 녹색당이 기후정의 단체와 차별철폐의제 단체들에 ‘비례플랫폼’ 형식의 연합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이후 진보정당 등으로 확산되도록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2023년 8월5일 ~ 6일	녹색당 전국위 워크숍	민주노총,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의 안을 검토하고, 비례플랫폼 형태의 선거연합정당 논의

2013년 10월19일	제주녹색당 당원집담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돌파구를 찾아서'	총선 방침과 목표에 대해 기본적으로 선본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결정권 위임. 다만 목표에 '기후정치와 함께 시민에게 접근가능한 현실 정치 목표가 추가되길 바란다'는 제주녹색당의 입장 전달
2023년 10월22일	녹색당 제104차 전국위원회	2024 총선대책본부 구성, 총선방침 결의 "기후녹색운동과의 선거연대에 기반한 전략지역구 출마" "특정 정당과 신설 또는 흡수합당이 아닌 선거연합정당 추진"
2023년 11월 2일	제주녹색당 11월 운영위원회	① 제주녹색당은 지난 7월, 10월 총선토론에 이어 '총선 논의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해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갖기로 함.(11/17 총선 Q&A 진행불발)
2023년 11월18일	녹색당 총선대토론회	"지금의 정의당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할 정치세력이 먼저 정해지고, 그들이 모여 연합정당의 당명, 선거강령, 지도체제, 공직후보 선출방식, 총선이후 필요한 조치 및 총선 이후 연합정치의 운영방안 등에 대한 합의에 따라 변화할 정의당이 플랫폼이 된다는 말을 의미"
2023년 11월26일	녹색당 임시 전국위원회	2024 총선 최종 방침 및 목표 승인 1.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서 자본주의 성장중심주의가 낳은 삶의 위기를 해결하고 거대 양당정치와 결별하는 녹색 대안 정치를 일구기 위해, 기후·녹색운동과 연대해 기후정치세력화를 추진 2.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서 기후정치세력화와 거대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u>원내진입을 목적으로 기후·녹색운동 및 진보정당과 강력한 선거연합을 추진하며, 정의당을 시작으로 선거연합정당을 추진</u> 3. 2024년 1월, 녹색당은 2024년 총선에 앞서 '기후정치대회'를 개최하여, 당의 사회 비전을 담은 '기후정치선언문'(가칭)과 당의 정책적, 정치적 원칙을 담은 '기후정치강령'(가칭)을 수립
2024년 1월 7일	녹색당 임시 전국위원회	당원발의안건(선거연합정당 논의 중단) 부결 및 당원 총투표 가결
2024년 1월14일	제주녹색당 총선토론회	'선거연합 당원총투표, 알고 투표하자!' - 선거연합정당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녹정시 등 당내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어보는 자리 - '녹색당이 정의당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은 기후정치세력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제에 대해 스펙트럼 형식의 의견 제출 - 0점~50점미만:5명/ 50점:7명/ 50점~100점:8명 (0점 부정의견~100점 긍정의견)
2024년 1월18일 ~ 22일	당원총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녹색당이 기후정치 세력화, 거대양당제 타파 등 당의 강령과 선거 방침 하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기후·녹색운동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선거운동 기록

내용	상세내용
공동선거대책본부	240203 녹색정의당 발족 240205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발족 240226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공동선거대책본부 출범 (3/1, 3/13, 3/20, 4/17/ 4/29 회의)
기자회견	240304 녹색정의당 대표단 제주방문 240306 옛 탐라대학교 부지를 제주답게 활용하기 위한 도민공론화 240318 숙의형정책청구 청구인 서명지 제출 240321 의료대란 관련 녹색정의당 기자회견 '의대증원, 국민참여 공론화로 해결하자' 240326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공약발표 '4대분야 10대정책' 240402 김준우 대표, 권영국 후보 제주방문 (대도민 지지호소) 240404 조천호 박사와 함께하는 길거리 토크콘서트 (비례후보 조천호, 정유현 후보)
간담회	240304 민주버스노조간담회 (김찬휘 대표)
서명운동	* 옛 탐라대부지 활용방안 숙의형 정책청구 240228 청구인 서명운동시작 240318 청구인 서명지 제출 (총 900여 명) 240325 반려 결정 240419 이의신청서 제출
길거리 토크콘서트	4/4 조천호 박사와 함께하는 길거리 토크콘서트 (제주대학교, 시청)
선거운동원 모집	240325 제주녹색당 총선 서포터즈 모집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3/28~3/31, 4/3 지지 독려 전화연락
유세차량을 이용한 정당연설회	3/ 6 17:30 노형오거리 3/ 7 10:00 제주시오일장, 17:30 제주시청 3/ 8 17:30 노형오거리 3/ 9 10:00 동문로터리, 17:00 제주시청 3/10 12:00 동문로터리 3/11 10:00 대정오일장, 17:30 서귀포 일호광장 3/12 17:30 제주시청 3/13 11:30 제주대학교 (* 3/18까지 읍면지역 추가 정당연설회)
유세	3/30 10:00 4.3민중항쟁 전국노동자대회 4/ 1 17:30 노형오거리 횡단보도 순례단 4/ 2 11:30 한라대학교 4/ 4 15:30 제주대학교, 17:30 제주시청 4/ 5 12:00 세화오일장 김옥임후보 지원유세 15:00 노형동 상가순회, 17:30 노형오거리 횡단보도 순례단 4/ 6 14:00 동문로터리, 중앙로 사거리 4/ 7 10:00 제주시오일장 4/ 8 15:00 노형동 상가 순회, 17:30 노형오거리 횡단보도 순례단 4/ 9 14:00 외도동 상가순회 17:30 노형오거리 횡단보도 순례단 19:00 인제사거리 강순아후보 지원유세
투표일	읍면지역 투표 참관 (애월, 성산, 남원, 표선)

◎ 홍보/공보 활동: 현수막 사업

- 게시일정: 2/5, 2/19, 3/4 (제주는 43개 읍면동별 1장씩)

- 게시내용: 제2공항국정조사, 기후위기대응법, 차별금지의제, 선거연합정당(제주녹색당 참여 예정이었으나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에서 일괄 게시)

◎ 기타

- 투개표 참관인 조직: 비당원 포함 총 49명 (애월 24, 표선 11, 남원 9, 성산 5)

● 결산

◎ 총 799,000원

- 차량운행수고비 40만원 (1일5만원×8일), 주유비 140,000원, 식비 224,000원, 현수막 35,000원.

● 평가 및 제언

2023년 녹색당 대의원대회에서 총선거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제주녹색당은 지역당 차원의 당원토론회(230729, 231019, 231117, 240114)와 운영위 회의를 거치며 선거연합정당 참여 등 총선방침에 대한 조직적 결의를 공유함.

240226 제주녹색당은 정의당 제주도당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진행함. 정의당 제주도당의 경우 사무처 등 핵심 인력이 제주시을 강순아 선분을 담당하고, 녹색정의당 비례농민호부 김옥임 후보의 경우 여성농민회 제주도연맹과 함께 읍면동 중심으로 선거운동 진행. 제주녹색당은 제주시 갑 지역 비례선거운동을 담당해 진행했고 지난 총선에 비해 많은 활동을 펼침.

본선거 전 비례선거운동으로 유세차량을 이용한 정당연설회, 의제별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고, 본선거 기간에는 ‘제주녹색당 2024총선 서포터즈’ 모집, 길거리토크콘서트, 횡단보도순례 피케팅, 시민을 만나는 선거운동,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등 다양한 방법의 비례선거운동을 모색함.

공동선대본 회의를 통해 ‘옛 탐라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숙의형 정책청구’(한화우주센터)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의 현안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공동으로 900여 명의 서명을 모아 숙의형 정책청구서 제출함.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4대분야 공약(농업.먹거리, 노동, 생태환경, 대중교통) 중 제주색당은 생태환경과 대중교통 분야를 담당해 1만원 기후패스, 서귀포운수 공영화 문제 등을 공약으로 제기하였으나 선거 기간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는 못함.

선거연합정당 당원총투표(1/18~22) 결과 다수 당원들이 선거연합에 찬성하였으나(찬성 83.64%) 이후 선거운동에서 적극적인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제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 녹색당 비례후보가 당선 가능권 순번을 부여받아 더 적극적인 당원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기대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함.

선거연합정당 출범 이후 탈당 및 CMS해지가 이어졌고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당원들이 있었으나 ‘선거연합’에 대한 반대인지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을 반대한 것인지 명확한 진단이 필요함.

* 정의당과의 선거연합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연합을 중단하는 것이 맞았을까?

제주녹색당은 2024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선거운동을 진행하며 비례선거운동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펼쳤음. 그러나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충분하고 유효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선거 이후 기후예산분석, 교통의제 등 정의당과 공동으로 추진할 의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하는 것 외에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요?

4/30부터 5/9까지 총 4회의 제주녹색당 당원 대상의 선거평가를 진행할 계획임.

* 4/30 서쪽 평가, 5/2 서귀포 평가, 5/7 제주시와 동쪽 평가, 5/9 온라인 평가